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7

성모기사

08



8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성인의 열정과 사랑을 본받아
저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며 열렬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구원보	02
프란치스코 성체 공경의 근본 사상 김성학	06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 권정대	08
막시밀리안 콜베와 교회 최문기	16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성 - 이다한	21
말씀묵상 최창원	24
장미 박영철	26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 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 김민석	28
호주 멜버른에 가다 김옥	39
그길 황재민	43
큰 V 안의 작은 V 정영란	48
함께하는 이모저모	53

"저의 주님 저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 4:17)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찬미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끈뎀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성모님에 관해 4가지 중요한 교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1월 1일), 평생 동정(3월 25일), 원죄 없는 잉태(12월 8일),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심 즉, 성모 승천입니다.

이 중에서 하느님의 어머니와 평생 동정은 구세사에 있어 성모님께서 하신 역할을 말해주며, 원죄 없는 잉태와 성모 승천은 성모님께서 받으신 은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며 "광복절"입니다. 성모님께서 지상 삶을 마치시고 하느님께 올라가심을 기념하는 날이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은 1950년 모든 성인 축일에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하여 성모 승천을 교의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께서는 지상 생애의 여정이 끝

난 다음 그 영혼과 육신이 천상의 영광 안에 받아들여지셨다.”

성모 승천은 원죄 없으신 잉태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평생을 죄 없이 사셨던 성모님께서 무덤에 묻히시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마땅하고도 올바른 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모 마리아께서 구원에 이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신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성모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힘으로 직접 오르신 것이요, 성모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불러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는 성모 승천을 ‘몽소승천’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단순히 성모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뿐일까요?

성모님의 승천으로 이루어진 근원적인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구원과 그 풍부한 은총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미사 강론 후에 우리가 ‘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라는 희망이 성모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로써 구원사업이 하느님으로부터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상호협력의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로서 성모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즉, 인간이 하느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짐을,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완전한 삶이 끝난 후 주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됨을 보여 주십니다.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는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께 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를 도외시하고는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전 세계를 티 없으신 어머니 마리아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매달리는 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체성사 그리고 우리의 참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바로 가톨릭 교회를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두 기둥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
깁시다. 우리 참 어머니,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함으
로써 삼위일체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성모 승천 대축일 영성체송)



그림 : 바르톨로메 에스데반 무리요

프란치스코 성체 공경의 근본 사상

김성학 사무엘

그동안 성 프란치스코가 성체에 관해서 가졌던 근본적인 이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 프란치스코의 성체에 관한 가르침이나 실천은 아주 새로운 관점이나 혁명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다만 교황이나 공의회 혹은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과 이름까지 공경해야 함을 말한다.

둘째로, 프란치스코에 의하면 성체는 육화의 신비를 나타내며 계속된 그리스도의 수난과 파스카 사건을 재현한다. 성체 공경은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다 포괄하는 예수께 대한 사랑의 길잡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더욱 작아지려는 마음가짐을 통하여 하느님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형제임이 미사성제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난다.

셋째로, 저서에서 그는 성체의 신비가 매일 새롭게 재현되는 구원 역사의 비전임을 보여준다. 성체에 대한 성인의 신심은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에게 있어 성체성사 거행은 단지 예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지극히 실존적인 생생한 만남을 통한 체험의 과정이었다. 그분의 이름과 기록된 말씀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

함으로써 육화의 계시가 성체 안에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로, 성 프란치스코는 성체를 통하여 교회 안에 항구히 그리고 생생히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신비를, 위로부터 오는 은총의 비추임과 신앙의 체험을 통해 확고히 믿었고, 이를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전하였다.

다섯째로, 미사에서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신앙생활의 정점이며, 또한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원천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그가 성체를 작은 형제들의 공동생활에서 형제들이 일치할 수 있는 사랑의 끈으로 보고, 작은 형제들의 사도적 활동의 중심이며 생명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성인은 우리 삶의 존재와 의미의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성체 공경은 성직자들과 거룩한 물건, 말씀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포함한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과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적인 표시는 신앙 자체에 효과적이고 생생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

권정대 베드로

제1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계신 마리아

제1부는 7항부터 24항까지이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계신 마리아라는 주제로 마리아에 관한 세 가지 성경구절, “은총이 가득한 이여(루카 1,28: 7-11항)”, “행복하십니다, (...) 믿으신 분!(루카 1,45: 12-19항)”,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요한 19,27: 20-24항)”가 특수한 시각에서 해석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계신 마리아”는 그리스도론 안에서의 모든 마리아론이 적합한 자리에 놓여있음을 명확하게 언급한다. 곧 그 위치에서만 마리아론은 정당화되고 이해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만 성모님의 신비가 충만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4항)

회칙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계신 마리아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7항에서 에페 1,3-7을 인용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

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페 1,3-7)”

만일 그렇다면, 자연스레 ‘어떻게 이 사랑받는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을까’하는 질문이 생긴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갈라 4,4)”라고 사도 바오로가 기술했듯 그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야만 하셨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그를 잉태하시었기에 죄가 있을 수가 없고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다. 비록 마리아 역시 구원받아야 할 한 인간이지만 마리아는 선행구속을 받아야 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고 이것이 예수의 육화 요건 중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칙이 마리아에 관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제1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은총이 가득한 이여

“은총이 가득한 이여(루카 1,28)”라는 인사와 이름은 하느님 아들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선택과 관련이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 마리아 안에서 인성과 실제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한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불린 주님 탄생 예고 사건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루카 1,42)”라는 명칭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충만하고 보편성(모든 복)을 지니는 영적인 복 때문이었다.

마리아는 하느님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되신 분이자, 아들도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거룩하신 성령께 영원히 위탁되신 분이였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있다.(8항)

“은총이 가득한”이라는 말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되고, 예정됨으로써 받는 모든 초자연적 은혜를 가리킨다. 곧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분, 말씀의 육화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 태,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통한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은 분, 자신의 출산으로 생명을 주신 분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신성에 참여하게 된 분이라는 사실을 포함한다.(9-10항) 그러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로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낳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구세주의 모친이 된다.

행복하십니다, 믿으신 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성령의 힘으로(루카 1,40)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이라고 외친다. 회칙은 엘리사벳의 이 말을 토대로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비에 참여하는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 언급한다.(18항)

회칙의 “은총이 가득하신 분”에 대한 부분(7-11항)과 “행복하십니다. (...) 믿으신 분!”의 부분(12-19항)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마리아의 신앙 응답은 손수 이끌며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완전하게 협력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선물로 신앙을 완성시키는 성령의 활동에 자신을 개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두 부분 모두 마리아의 본질적인 내용, 곧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현존하게 된 마리아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며, 순종으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마리아에게 달려있던 성자의 원의가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마리아가 복된 이유이다.(12-13항)

마리아는 신앙 안에서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쳤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에 이미 마음

안에, 다시 말해 믿음 안에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복하십니다. (...) 믿으신 분!”이라고 한 엘리사벳의 말은, 마리아가 주님 탄생 예고의 특별한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순간이 마리아의 믿음의 정점이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모든 신앙의 순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14항)

마리아는 아들 예수와 함께 요셉의 보호 아래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을 때에도(마태 2,14-15), 이후 드러나지 않은 나자렛 생활 동안에도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신비와 접촉한 상태에 있었다. 이들의 공생활 중에도 신앙의 나그넷길을 충실히 걸었고,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들었던 믿음의 축복이 마리아 안에서 성취되었다.(16-17항) 마리아의 신앙이 완전히 드러난 곳은 당신 아들의 십자가 아래에서 계실 때(요한 19,25)다.(18항)

“성모님께서서는 당신 외아들과 함께 심한 고통을 겪으시며 당신에게서 나신 희생 제물에 사랑으로 일치하시어 아들의 희생 제사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을 결합시키셨다.”(교회현장, 58항)

이 결합은 주님 탄생 예고 때, 천사의 계시를 받아들인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기 비움(kenosis)의 놀라운 신비에 참여한다. 곧 믿음

주¹⁾ Augustinus, De Sancta Virginitate 3,3(PL40,398): “ergo Maria percipiendo fidem Christi quam concipiendo carnem Christi.”; Sermo 215,4(PL38,1074).

을 통하여 구원을 주는 당신 아들의 죽음에 동참한 것이다.(18
항) 마리아가 믿음을 통해 당신 아들의 구원사업에 동참하게 된
사건을 설명하면서 공의회와 교부들은 원 복음을 인용한다.(교
회헌장, 56항)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 3,15)” 교부들은 원죄
이후 뱀에게 내려진 이 심판을 구세주의 첫 번째 약속으로, 뱀
의 머리를 쳐부술 자손의 예표로 받아들였다.

이 후손은 축복과 자유를 약속한다: 그는 뱀의 머리를 치신
다. 그러나 저주, 속박은 그 힘을 보유한다: 뱀이 그의 발꿈치를
친다. 축복과 저주, 구속은 그 힘을 보유한다: 뱀이 그의 발꿈치
를 친다. 축복과 저주는 균형 잡힌 상태로 남아있는 듯하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지 않다. 요한 묵시록에는 이 세 등장인물들(여인,
여인의 아들, 뱀)이 다시 나타난다.(묵시 12) 역사의 드라마는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
뻐하여라.”하며 천사가 축복으로 가득 찬 여인으로 다시 나타난
마리아를 경배한 나자렛 사건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성 이레네오 교부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와의 불순종으로 묶
인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풀렸다. 처녀 하와가 불신으
로 묶어 놓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께서 믿음을 통하여 풀어주셨
다.”라고 하였다.(교회헌장, 56항) 또한 마리아는 “순종하시어 자

신과 온 인류에게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²라고 말한다. “행복하
십니다, (...) 믿으신 분!”이라는 엘리사벳의 외침처럼 마리아는
신앙의 나그넷길을 걸으면서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
냈다고 추론할 수 있다.(19항)

이분이 네 어머니이다

“이분이 네 어머니이다.(요한 19,27)”라는 십자가 위에서 예
수의 말씀은 마리아의 모성에 대한 언급이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육체적 모성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발전하는 신비로운 영적 유대로 관심을 향하게 한다.(20항)

곧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당신을 낳고 젖을 먹인 육적인 어머니의 인연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루카 11,27-28) 영적인 어머니의 인연을 맺었음을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루카 8,21)”라는 말씀을 통해 육적인 인연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영적 인연에 주의의를 돌리게 하였다.

이 내용에서 설명하듯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

주2) Ireneus, Adversus the Haeresis 22,4(PG7,959): “obediens, et sibi et universo generi humano causa facta est salutis.”

는”(루카 11,28) 첫 번째 사람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를 받았을 때 믿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메시아적 사명 기간 중에 계시하신 모성의 다른 차원을 깨닫고 받아들인다.

마리아는 맨 처음부터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하느님께 대한 순명(Fiat)을 신앙의 여정 중에서도 발하며 당신의 모성적 사명을 수행한 것이다.(20항)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전구했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4)”라는 말로 당신 아들의 뜻을 대변하여, 메시아의 구원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들을 지시했다.(21항)

그리스도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라는 유언으로 파스카 신비의 결정적인 성취에서 비롯된 마리아의 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개인과 온 인류를 포괄하는 신비의 한가운데서 계신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모든 개인과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다.(23항)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의 모성이, 요한으로 상징되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지속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24항)

막시밀리안 콜베와 교회

최문기 마티아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형제회가 교회의 보호 안에 있기를 원하였다. 그는 철저히 교회에 순종하였고 그의 형제들과 훗날 입회하게 될 모든 형제가 “거룩한 교회의 발아래 항상 매여 순종함으로, 가톨릭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였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그의 신뢰와 추종을 단순히 유럽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였던 시대적 상황의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가 이런 원의를 가졌던 주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뚜렷한 현존을 교회 안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체험은 그로 하여금 더욱 강력하게 교회와 형제회가 결속되기를 바라는 원의로 나타난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약속하신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었으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교회가 보여주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항구함의 원천이었다.

프란치스코 영성의 충실한 계승자이자 ‘사랑의 순교자’인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이었을까? 그 역시 철저히 교회에 매어 있는 프란치스코인이었으며 교회에 대한 일관된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교회에 대한 사랑은 특히 그가 로마

에서 머물던 7년(1912-1919) 동안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세계교회의 중심지에서 교회의 위기를 두 눈으로 목격한 그의 마음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사도적 열성으로 넘쳐 흘렀다. 그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로마에서 나는 오직 교황님만 보았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나에게 상관없었던” 시기였다.

교회에 대한 콜베 신부의 사랑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의 말이나 글 속에서 독특한 교회관이나 교회의 모델이 뚜렷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글과 편지들 속에서 드러나는 교회관을 종합하면, 그는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신학이 아닌, 생생한 그리스도교 형제애의 표상과 매일매일 순교의 열망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신학적 체계에 기초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6년 성모 기사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성경을 인용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지옥의 권세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성서적이고 역사적이며 종말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교회에 참여 시키신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구원사업을 계승하며, 이를 통해서 고유성과 영

속성을 보장받는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현존하시고 교회는 그분의 구원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또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과 인간은 교회 안에서 말씀 선포의 명령과(“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영원한 현존의 약속(“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을 통해서 굳게 결속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콜베 신부의 교회관은 케리그마(Kerygma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얻고, 그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설교나 선언의 내용, 혹은 선언하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은 콜베 신부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에서 선언되었으며 비오 13세(재위 1878-1903)에 의해서 반복해서 재확인된 것들이다. 그는 아마도 로마 유학 시절, 이러한 교회론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교육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이러한 신학적 체계를 받아들였다. 그는 교회와 교계 제도 - 즉 모든 인간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세상에 대한 교황의 도덕적 권위를 깊이 인식하며,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이 거대한 권위와 인식에 일치시키고 있다.

로마 유학 중 젊은 콜베 수사가 반교회 단체인 프리메이슨의 행렬을 보며 가톨릭교회의 위기를 직감했을 때, 그는 당면한 위기의 본질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불순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인간이 원죄를 저지른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여인의 후손과 뱀의 갈등 -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 3,15) - 의 한 형태로 보았던 것이다.

사실 여인과 뱀의 갈등은 - 세상에 속한 뱀을 따르는 무리와 교회에 속한 여인을 따르는 무리 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져 왔으며, 그것이 그의 시대에 교회와 프리메이슨의 대립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빛에 맞서는 악의 세력은 역사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거기에 응전하는 여인의 무리는 역사를 관통하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으니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콜베 신부는 1913년 로마에서 피정 중에 사도 베드로가 가시적인 교회의 반석으로서 예수의 선택을 받았음을 묵상하며, 교황과 함께 하는 성교회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계승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1티모 3,15)라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교회는 하느님의 현

존과 진리가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이며, 이로 인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온 교회가 믿어야 할 교리로 정의하고 선포” 함에 있어서 무류성을 가진다.

나아가 그는 니에포칼라누프(성모의 마을)의 건설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사도직에 이러한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영감을 불어 넣는다. 그는 완전하고 견고하며 구원의 진리를 보유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자신의 공동체와 공동생활 안에서 구현 되기를 원했으며, 이를 위해서 교회의 영성적이고 성사적이고 형제애적인 전망과 연결된 교회상을 세운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굳세고 능하신 주님, 싸움에 능하신 주님”과 함께 머무르며 함께 강하고 용맹스러워진 하느님 백성들의 공동체로 이해 되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정 -

이다한 스테파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2주년을 맞아 회칙의 가르침과 정신이 가톨릭 교회와 세상 안에 더욱 널리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국제가톨릭기후운동(The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의 사무총장 토마스 인수아(Tomás Insua)의 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BRINGING LAUDATO SI’ TO LIFE)”을 소개합니다.¹

영성의 차원에서 〈찬미받으소서〉를 생활화하기 (1)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찬미받으소서〉 217항). 생태적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², 그리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영감을 받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생애적 회개에는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에서부터 다른 피조물들과의 친교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태도들이 서로 어우러져 관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넘치는 환경 보호의 정신을 촉진하는”(〈찬미받으소서〉

주1) <http://catholicclimatemovement.global/>

주2) St. John Paul II, Catechesis (17 January 2001), 4: Insegnamenti 41/1 (2001), 179.

220항)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되고 얼마 되지 않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The World Day of Prayer for the Care of Creation)’로 지내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날 제정은 “우리의 풍부한 영적 유산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하여 열정을 불어넣어 주는 이유에 주목”하기³⁾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에 공식적인 날짜가 설정됨으로써 가톨릭 공동체는 피조물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실천은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함께 하는 교회 일치 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국제가톨릭기후운동(The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추진하면서 많은 가톨릭 공동체가 이 기도의 날 거행에 함께 하자는 교황님의 초대를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단체들은 다가오는 해에는 피조물을 기억하는 이 공식적인 기도의 날의 중요성과 의의를 알리고 고취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면서, 교회가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3)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한 (2015년 8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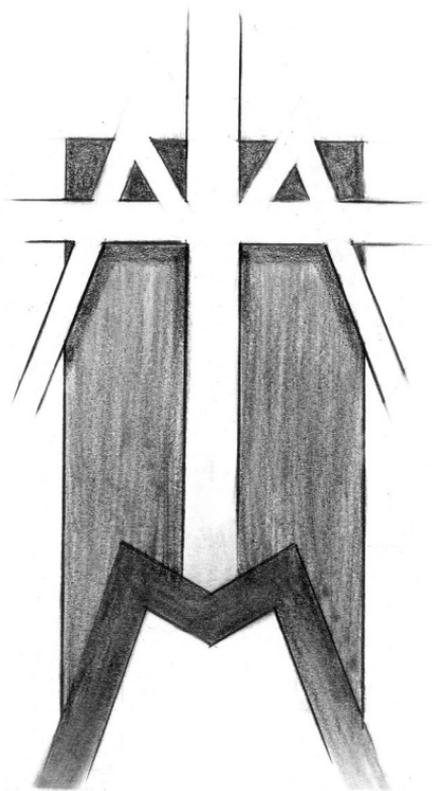
이와 관련해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미 국제가톨릭 기후운동의 네트워크 안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계획은 ‘피조물을 위한 기간(Season of Creation)’, 혹은 ‘피조물의 시간(Creation Time)’ 거행입니다. 그 기간은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시작해서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까지 한 달간 지속됩니다. 피조물 보호라는 주제에 의미 있게 참여하기에 9월 1일 기도의 날 단 하루로는 너무 짧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이 특별한 시기의 거행을 시작했으며, 필리핀과 유럽의 가톨릭 주교회의들은 2003년과 2007년에 각각 이 계획에 합류했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계속)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성모 승천 대축일 복음환호송)





“주 하느님, 저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풍성한 은총을 얻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은총의 어머니요 중개자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 미사 본기도)

장 미

박영철 요셉

으뜸이시어라.

하늘로부터 천사의 방문을 받으시고
한 아기를 잉태하리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신 당신은
으뜸이시어라.

기쁨이시어라.

누추한 마구간에서
이 세상에 한 아기를 낳으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넉게 봉헌하신 당신은
기쁨이시어라.

고통이시어라.

매 맞으시고, 피땀 흘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의 고통과 함께 한 당신은
고통이시어라.

영광이시어라.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고
이 땅에 빛을 보내 주셨으며
하늘에 불러 올리시어 당신 아드로부터
천상천하의 모후의 관을 쓰신 당신은
영광이시어라.

사랑이시어라.
당신의 장미 향기로 우리를 초대하시어
장미로 옷을 입혀 주시고 저를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저를 잉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당신은
사랑이시어라.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 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

김민석 안젤로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아이로 하여금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으라.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재발견해야 하며,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선 안 된다.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 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오드리 험번-

인도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내가 사
친 친구들, 인도 형제들이다.

Abi를 빼놓고는 내 인도 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다. 서로 닮은
점도 많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콜베 수도원에서 나와 단짝으로
통했던 그는 언제나 사려 깊은 마음으로 나의 어려움들을 자기
일처럼 곁에서 도와주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언제나 먼 길
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구해주었고, 미사 시간과 같은 공동
체 시간이 변경되면 늘 잊지 않고 내 방에 찾아와 알려 주었다.
그리고 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면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항상
 물어봐 주었고, 배구를 잘 못하는 나에게 배구 기초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등,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 보니 서로에게 속마음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
 었다. 늘 나의 고민까지도 함께 고민해준 그였기에 인도생활을
 생각하면 늘 그가 첫째로 떠오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 그리워진다. 안그래도 머리술이 없는데 인도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더 심하게 머리가 빠지게 되었다. 이것 때문
에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Abi가 한마디 했다. “Kim, 너는 머리
 빠진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넌 이미 대머리거든.”
이처럼 그의 인도식 개그는 자주 나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늘
 마무리는 “수도자는 외모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등 아주 영성
 적(?)인 내용으로 마쳤다.

Delvin의 별명은 ‘루루몰 사장님’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편의점 주인’ 정도 될까? 수도원 2층 공동방에 있는, 캐비닛으로 된 ‘작은 슈퍼마켓’ 운영을 담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그것을 열어보면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물품들(비누, 칫솔, 치약, 샴푸, 빗 등)이 아기자기하게 들어있는데, 모든 형제는 자신의 한 달 용돈 200루피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소비했다. ‘루루몰 사장님’의 특권은 한 학기에 한 번 본인이 원하는 날에 전 형제들을 위하여 ‘알사탕’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맙게도 그는 그것을 내가 콜베 수도원으로 숙소를 옮긴 첫날에 사용해 주었다. 인도 ‘알사탕’ 맛은 뭐랄까?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문방구뿔기에서 ‘깡’이 걸리면 하나씩 주었던 ‘땅콩 캐러멜’ 맛이였다.

그는 늘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그래서 몇 가지 가르쳐 주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미남이시네요.” 등등. 한번은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것이 문득 생각나서 장난으로 “사랑합니다.”의 경상도 버전, “내 아를 나도!”를 (그냥 밈도 끝도 없이) 좋은 표현이라며 가르쳐 주었는데,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해 11월, 최문기 마티아 신학 원장님께서 인도 콜베수도원을 방문하셨을 때, Delvine이 그 말을 원장님께 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혼났다. 역시 장난도 가려가면서 처야 한다.

Tijo 형제는 콜베 수도원에서 제일 잘 생긴 형제인데, 항상 까불까불, 고집불통이었고, 언제나 나를 골탕 먹이려고 허위정보를 제공했다. 그 덕분에 콜베 수도원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

었다. 한 날은 나에게 ‘쿵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장난으로 이상한 것을 가르쳐 줬다. 상대방 바로 앞에서 왼 주먹으로 내 가슴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치면서 동시에 오른 주먹을 상대에게 닿을락 말락 내뺀는 동작이었다. 이 동작은 가슴을 쿵 치는 소리 때문에 멀리서 보면 정말 상대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나도 일종의 눈속임을 ‘쿵후’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했다. “Kim이 좋은 걸 가르쳐 줬다”며 다른 형제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Abin은 ‘Big Brother(큰 형제)’ 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콜베 수도원에서 덩치가 제일 컸기 때문이다. 인도 형제들 대부분이 마른 체형이었지만 이 형제 만큼은 발육상태(?)가 남달랐다.

한날은 그와 본당 실습을 나갔는데, 그곳 주임신부님이신 Antony 신부님과 내가 같은 83년생이라서 그것을 계기로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특별히 미사 후에 본당 주변에 있는 유대인 회당과 인도 전통 박물관을 구경시켜 주셨다. 박물관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인도사람은 30루피, 외국인은 300루피’ Abin과 Antony 신부님께서는 몇 초간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장난기 어린 얼굴로 나에게 말하였다. “Kim, 박물관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세요. I’m from Assam!” Assam은 인도와 중국이 맞닿아있는 접경지역으로서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이다. 나는 시키는 대로(?) 인도사람인 척하여 단돈 30루피에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든 것이 한 동안 콜베 수도원을 떠들썩하게 했다.

Sonu 형제를 보면 어렸을 적 만화에서 보았던 '손오공'이 떠오른다. 그래서 한국 만화에 나오는 잘생긴 주인공이라며 'Mr. 손'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다. 그는 콜베 수도원의 식당 일을 도맡아 했었는데, 음식과 관련하여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인도에는 '타피오카'라고 꼭 우리나라 감자와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나는 먹을 때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생했었다. 이런 나의 고충을 잘 알고 있던 그는 밥 대신 '타피오카'가 나올 때마다 늘 나에게 삶은 달걀 두 개를 슬쩍 챙겨주었다. 음식으로 힘든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달걀 두 개와 그것을 준비해준 Sonu의 마음... 달걀의 고귀함(?)과 함께 깊은 형제애를 느낄 수 있었다.

Justine은 당시 콜베 수도원 4명의 부제 중 한 명이었는데, 나에게 인도 전통 노래를 자주 불러주었다. 어느 날 나에게도 한국 전통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 배엔~" 하고 불러주며 열심히 손동작까지 보여주었다. 그런데 순간 형제들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몇몇은 수군거리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케랄라 주 언어(말레이람어)에서 '푸른'이라는 발음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이었다. "얼마나 심한 욕이야?" 하고 물으니 그는 대답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최소한 얼굴 몇 대는 언어맛을 거야." 아직까지도 그 단어의 정

확한 뜻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인도 케랄라 주에 가면 이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 적어도 시작 부분만큼은!

Jaswine은 커피를 아주 맛있게(?) 마실 줄 아는 형제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항상 단맛 때문에 개미들이 많이 꼬여 있었는데, 그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테이블 위에 보이는 개미들을 모두 커피 잔 안에 쓸어 담아 마셨다. 이렇게 마셔야 눈이 좋아진단다. 다른 형제들도 대부분 이렇게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나도 몇 번 따라 해봤지만 시력이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인도에 처음 도착하여 인도 관구 본부에 몇 주 머물렀을 때, 동네 아이들이 내게 말했다. “Kim, 너의 말레이람어(인도어) 실력은 최고야.” 하지만 내 인도어 실력이 좋을 리 없다. 잠시 기다리니 몇 마디가 더 뒤따라왔다. “only in your room!” 역시 우스갯소리였다. “Kim, 너의 인도어 실력은 최고야. 오직 네 방 안에서!” 그러니까 내 방 안에서만큼은 내가 1등이란 말이다. 당연히 1등일 수밖에! 내 방 안에 나밖에 없으니 뭘 해도 내가 1등일 수밖에!

꼬마가 몇 가지 인도 말을 가르쳐줬는데 내가 잘 발음하지 못하자 날 놀린다고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 나는 이 말을 콜베 수도원에 가서 형제들에게 그대로 써먹었다. “Tijo, 넌 인도 최고의 신학생이야, 네 방 안에서는!”, “Jijo, 넌 인도 최고의 수도자야, 오직 네 방 안에서는!”, 키가 작은 Abraham에게는 “넌 키가 가장 큰 사람이야, 네 방 안에서는!” 제일 똥똥한 Abin에게

는 “넌 가장 날씬한 사람이야, 오직 네 방 안에서는!” 콜베 수도원 형제들은 모두 이것을 한국식 개그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인도 관구 본부 근처에 사는 동네 꼬마들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다.

학생 수사님들뿐만 아니라 인도 관구 신부님들에 대한 기억들도 잊을 수 없다. Alfred 신부님께서는 내가 맨 처음 콜베 신학원에 갔을 때 신학원장님으로 계셨던 수사님이시다. 나의 영적 지도는 물론,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와 ‘타밀 나두(Tamil Nadu) 주’ 등 나의 구체적인 인도 체험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셨으며, 수도원 근처에 위치한 가톨릭 초·중·고등학교에서 농구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해 주셨다. 콜베 수도원에 도착한 첫날, 신부님께서는 나를 동네 신자분들 집집마다 데리고 가셔서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날 신부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좁은 동네 골목길을 이곳저곳 다녔던 그 정겨운 기억은 잊을 수 없다.

Peter 신부님은 내가 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관구 본부에서 가장 먼저 인사 나누었던 신부님이시다. 언제나 나를 보면 웃는 모습으로 반겨주셨는데, 언젠가 신부님께서 원장으로 계시던 ‘전-수련기 공동체(Pre-novitiate house)’에 방문했을 때, 내가 지닌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늘 웃는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님의 말씀 덕분에 힘을 받아서 인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웃으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말 한마디에 정말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 같다.

Titus 신부님은 에이즈 센터에서 봉사하시던 수사님이시다. 항상 나를 “Kim! Come! (김! 어서 와!)” 하며 부르셨는데, 그 때문에 에이즈 센터 아이들은 날 ‘킹콩’이라고 불렀다. 이 소문은 콜베 신학원까지 전해져서 한동안 모두가 나를 ‘킹콩 형제’라고 불렀다. 맨 처음 성모기사지 글 청을 받았을 때도 제목을 “킹콩 수사의 인도체험기”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생뚱맞고 튀고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평범하게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로 정했다.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다.

Stanley 신부님 또한 잊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 이유는 수사님께서는 늘 내가 인도에 온 이유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Kim, 얼른 와서 설거지해! 얼른 와서 마당 쓸어! 인도 체험 하러 왔으면 한국 가는 그 날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관구 본부에 머무는 동안 신부님과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닦치는 대로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낀 것 같다. 힘든 작업이 끝난 뒤에는 언제나 나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드라이브 시켜주셨다. 인도 거리에서 불어오는 향긋한 매연(?) 냄새와 함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풍경들은 나의 감탄을 연발로 자아내었다. 이렇게 땀을 식히며 심취해 있던 나에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Kim! 오늘 일 한다고 수고했어.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자!”

인도 생활이 무르익어가면서 문득,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나의 인도생

활, 어설피 외국인이었던 내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이해해주었던 내 친구들, 오늘 하루는 이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싶다.

인도 형제들과 결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툼 후에는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그렇듯, 서로 싸우고 깨어지고 깎여지는 과정 안에서 작은 깨달음들을 얻어나갔다. 영어로 말 싸움하는 순간에 영어가 가장 빨리 늘었다. 티격티격 싸울 거리가 생기면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탁 튀어나오는 기이한 현상(?)은 참으로 신기했다. 나와 말싸움하는 도중이라도 내 영어 문법이 너무 많이 틀릴 때면 싸우다 말고 형제가 수정해준 적도 있었고, 이렇게 영문법의 바다에서 헤매다 보면 왜 싸우고 있는지도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 “내가 또 언제 인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싸워 보겠니? 정말 영광이다!” “나도 한국사람 만나서 싸워봤다고 동네에 자랑하고 다닐거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 싸움이 거의 끝나간다는 신호다. 마지막으로 웃으며 헤어지면서 우리는 더욱 친해졌다고 확신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 소박하고 착한 인도형제들이 성질 괴팍한 나를 잘 받아준 것 같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후 성탄 즈음, 무심코 메일을 열어봤는데 Abi로부터 편지가 와 있었다. 인도 북부지역으로 파견 나갔으며 들뜬 마음으로 새롭게 만난 형제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내왔다. 나는 답장으로 지금 한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

어졌고 하늘에서는 흰 눈이 펄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며칠 뒤 그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내 말을 영 못 믿는 눈치다.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늘에서 펄펄 내리는 흰 눈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증거를 보이란다.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인도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더운 곳이 이 세상에 존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니까. 인도에서 약 1년간의 삶이 아직도 꿈만 같이 느껴지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으면서도 그곳에 대한 동경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남아있으니까. 나도 한 번씩 인도에서의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의심할 때가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믿을 수 없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내일이면 잊혀 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사람들의 총탄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

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인도 마더 테레사 본부 벽에 붙어 있는 글-



Alfred 신부님과 함께



신학원장님 인도 방문

핀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

호주 멜버른에 가다

김옥 다윗

호주에 온지도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말했던 체류 기간이 이제는 말하기 조금 민망스러워집니다. 적응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일까요.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만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솔직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멜버른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은 스포츠입니다. 멜버른에는 좋은 골프장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이들이 골프를 즐깁니다. 신자들도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모여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사목을 위해서 골프를 쳐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수도자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부터 골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래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시작하기가 두려웠을지도 모르죠.

처음 한인 본당이 있는 성당을 둘러봤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성당에 실내농구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잘 닦인 농구코트를 보면서 중고등학교 때 매일 농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점프슛이 깨끗하게 링을 가르며 네트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의 상쾌함은 다른 어떤 스포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쾌

감을 가져다줍니다. 농구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마무리로 클린샷을 넣기 위해 계속 골을 던지다가 친구들에게 안 가냐고 욕을 먹기도 했었던 기억도 나네요.

멜버른에서는 스포츠클럽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관심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어울려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목요일 저녁 주변 본당의 농구팀이 모여서 리그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성당이 처음 참가한 시즌이 종료되었습니다. 4위를 목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자 했지만 9개의 팀 중에서 6등을 했습니다.

목요일 리그에는 만 35세 나이 제한이 있는 반면 제가 뛰었던 주일 리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 리그에 참가했을 때 함께한 신자들이 생각보다 연세가 높아서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과 함께 리그에 참여하는 아버지, 불편한 다리에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뛰는 신자를 보면서 걱정은 사라지고 정말 농구를 즐기는 이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농구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멀리 호주에 와서야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네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나야겠다는 마음보다 주님

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주시는 사명에 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짧게 만들어 나가는 길이 됩니다.

해외에 나와서도 풀리지 않는 큰 키 덕분에 농구팀에서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골대 밑 좁은 자리에서 몸싸움이 많은 포지션이지만 그만큼 팀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농구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리그에서 지난 시즌 제가 속한 팀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 저는 활약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여러모로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화려하게 득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팀원들이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팀전술에 도움이 됩니다. 각자의 실력을 뽐내기보다는 조화로운 플레이를 할 때, 서로의 경기력도 향상됩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많다고 하더라도 팀워크가 없다면 오합지졸이 되고 말죠. 스타는 많지 않지만 경기력이 꾸준한 팀은 서로를 받쳐주고 끌어주며 결국 승리하곤 합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서도 잘난 사람들,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보기에 좋은 몫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허나 그 속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경기의 MVP는 아니지만 MVP를 만들어 내는 조력자들 말입니다. 스스로 빛나진 않지만 곁에 있는 다른 이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몫을 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곁은일을 묵묵히 담

당했을 때에 결국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찬스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느님 이름 아래 모이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서로에게 긴밀하게 영향을 줍니다. 나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신앙도 해치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사랑과 배려는 나 하나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설교자나 신학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신자가 있기에 그들의 설교가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는 그 열매로 지탱이 됩니다.

경기하다 보면 넘어지고, 맞고, 다치고, 멍들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골을 성공시켰을 때, 짜릿하게 역전승을 했을 때, 그런 상처들은 다 씻겨 내려갑니다. 우리의 사랑도 넘어지고, 맞고, 다치고 멍들기도 하지만 고난을 겪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30% 되지 않는 숯 성공률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들어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던져봅니다.

그 길

황재민 토마스 아퀴나스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 없는 어린양처럼 걸어가신 길.
외로이 걸으신 그 고통의 길.
이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다.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사랑의 길.
부르심의 길. 그 영광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임석수, 「그 길」)

세상을 살면서 한 분이신 주 하느님께만 마음을 모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내 마음은 갈대 같아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말씀하신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0)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1)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머리로만 받아들이거나 정작 삶에서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실천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필요하지만 고통도 따른다. 다음은 기도를 통해 그분께서 알려주신 방

법이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로 모음. 내 안에 있는 세속적 쾌락들을 쫓아낸 후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운다.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기가 참 힘들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해서 내 욕망이나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함. 사랑하는 연인이 기뻐하는 모습에 내 마음이 더 기쁘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 나 자신을 잊는 무아(無我)의 일이다. 나의 편견이나 아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포함된다.

세 번째, 정신을 다해서 어두워져 가는 내 영혼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밝히며 말씀을 실천하고자 함. 사람은 세상에 사는 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 자꾸만 어둠으로 가고자 한다. 또한 나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도 있다. 이런 어둠으로부터 저항해 내 온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둠의 물에 잠기는 나를 건져 올려 주실 것이다.

네 번째,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함.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먼저 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시리라 믿는다.

분명 위의 네 가지를 행하는 데에는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고통이 필요하다. 겸손과 온전한 의탁이라는 조건도 수반되어야 한다. 겸손과 의탁 없이 말씀을 실천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겸손과 의탁의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요한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요한 3,8)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숨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의 숨결은 느낄 수 있다. 바람의 발생은 자연에서 시작되며 그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과학적으로 바람은 기온이 낮은 고기압 지역에서 기온이 높아서 생기는 저기압 방향으로 분다. 그러나 바람은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소리(숨결)는 바람과도 같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곳이 어딘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바람도 바람이 원하는 곳에 머물 듯, 성령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무신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곳에 먼저 머무신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시며 우리의 차원을 넘으신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탁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어릴 때 하던 연날리기를 떠올려보자. 연을 바람의 방향에 잘 맞추어, 묶여있는 실타래를 풀면 연은 가볍게 하늘로 솟아오른다. 연을 바람에게 맡겨 날게 하듯이, 세속과 어둠에 묶여있는 ‘나’라는 실타래를 풀어 바람이라는 성령님께 그냥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신다. 하느님의 뜻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다. 그저 나의 모든 것을 바람에 맡긴 연처럼 내어 맡기면, 성령님은 당신의 뜻과 은총을 퍼부어 주신다. 기쁨은 덤으로 따라온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하늘의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불완전한 이유 중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나를 사랑하는 이웃과는 잘 지내지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웃과는 그렇지 못하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편하다.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무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반대로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고통의 극한을 그대로 받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염려하셨다. 예수님이란 분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계신다. 내 힘으로 떼어낼 수도 없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보다. 방법이 없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 해야 한다.

어릴 때 놀이로 했던 일등 따라 하기처럼, 잘 안되면 흉내라도 내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할

만큼의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하느님의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은총이 기다린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고 모든 것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이긴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 역시 고통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껴안고 싶다.

내게 맡겨진 고통을 사랑하여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됨을 믿는다. 고통 없이는 절대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당신의 수난으로 증명하셨다.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께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힘과 용기를 내어본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아.

내가 걸어온 그 길이 바로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의 끝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나를 따라 오너라.”

큰 V 안의 작은 v

정영란 마리아네스

2016. 7. 29. 아우슈비츠.

누가 감히 그 침묵의 깊이와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있으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홀로 침묵 중에 그 현장으로 걸어가신
다.

교황님의 폴란드 사목 방문을 실시간 중계하는 위성 TV 화면
위로 여름 햇살만 그 침묵을 채우듯 고요히 가득하다.

평상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미소와 다정한 말씀으로 맞추어
주는 교황님께서 이번만큼은 수행원도 기자들도 다 물리치시고
그리 홀로 걸어가신다.

유태인 포로수용소 입구 한 여름 나무 아래 한 동안 앉아 묵상
하시다가 이윽고 캄캄 어두운 그 감방에 들어가시어 말없이 기
도하신다.

그곳은 어떤 곳이던가.

처형 지명을 받았던 수감자 가조프니체크 중사(中士) 대신 콜베
신부님이 1941년 8월 14일 마흔일곱 나이에 보름간 굶으신 몸에
독약 주사를 맞고 순교하신 아사(餓死) 감방.

1985. 겨울, 그리고 2016. 6. 파리, 튀 뒤 박 140번지.

파리 7구 세브르 바빌론 지하철역 인근, 화려한 쇼윈도의 프

랑스 최초 백화점 건물 뒤 ‘사랑의 딸 회’ 모원(母院), ‘기적의 메달’ 성모 성당.

1985년, 아직 개신교 신자이던 나에게 잊지 못할 프랑스의 예수회 은퇴 노 사제님은 단 설명 없이 140번지 뒤편에 있는 경당에 가서 기도하라 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콜베 성인 신부님의 유명한 ‘탄환’이 되어 준 기적의 성모 패(牌)의 현장. 콜베 신부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이 성모 메달을 한 움큼씩 쥐고 나눠주며 성모의 기사로 성큼 성큼 전쟁터와 같은 사목 현장 현장마다 나아가셨다지.

언젠가부터 나와 늘 동행하고 있는 ‘원죄 없으신 성모 패’의 현장에 2016년 6월 다시 들러보았다. 마당 입구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하신, 감사하기 그지없는 ‘자비의 희년’ 성문(聖門)이 조성되어 있었다. 눈물 속에 성문을 거쳐 경당으로 들어가 둘러 본다.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순례객들 열기로 어질어질하다. 저 앞쪽 제대 곁에는 성모 발현을 1830년 7월 18일부터 마주한 카타리나 라부레 수녀의 성해(聖骸)와, 성녀가 몸담았던 수도회를 창설한 성 빈첸시오 아 바울로의 상(像)이 보인다.

1994. 8.14-15, 그리고 2017년 8월. 서울.

3년 전 영세의 감동 여진 속에 필연인지 읽게 된 성인전, 가공(可憐)할 아우슈비츠를 체험한 마리아 비노프스카가 쓴 『막시밀리안 콜베』.

1994년 광복절 전날 — 아직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다 — 마

침 한여름 강렬한 석양 빛 비취오던 무렵 이 콜베 성인의 전기를 다 읽고 책장을 덮으려 하던 순간 마음을 넘어 손까지 떨려오던 전율, 전율.

그날 책장 마지막에 적어둔 메모가 23년 만에 이 〈성모기사 8월호〉 기고문을 쓰려고 다시 펼쳤을 때 눈에 들어온다. ‘나의 뜻 혹은 자유의지 (소문자 v)를 하느님의 뜻 (대문자 V)과 포개야 한다’라는 메모. 그러면서 나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브이자를 포개어 그려 놓았었네….

“성성은 사치품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위의 책, 159쪽)라고 제자들을 일깨우시며 콜베 신부님이 친히 분필로 칠판에 쓰신 공식(公式), $v=V$. “이 두 개가 十형으로 교차하면 생기는 십자가를 없애려면 서로를 일치시킬 것”이라는 당신의 가르침을 나는 내 식으로 대문자 V안에 아예 소문자 v를 적어 놓은 거다. “여러분들의 의지(voluntas)를 하느님의 의지(Voluntas)와 일치시키십시오. 하느님의 의지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포개진 v자가 w자로 쪼개지지 않으려면)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난다. 책장을 덮으며 창 밖으로 내다본 염천(炎天), 붉게 이글거리던 석양이 성인의 유해가 던져져 소각된 아우슈비츠의 화장장 가마솥 열기를 연상시켰던 그날….

장렬한 성인의 죽음. 1941년 8월 14일, 아사 직전의 앙상한 팔에 마지막 치명(致命) 주사를 맞고 순교하시고 이튿날, 그토

록 사랑하시던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날 화장장 가마솥에서 소
각되신 성인.

“절망이 그 극도에 달하고 ‘타인’을 ‘지옥’처럼 경계하는 시
대에 즐거운 마음으로 ‘한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가져오셨던
분”(같은 책, 207쪽)을 알게 된 이후, 한반도에서 맞는 매년 8월 15
일, 광복절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 겹친 이 날은 나로서는 오염
전의 순수한(!) 태극기를 내달고 성당으로 걸음을 옮기며 성모님
과 성인을 함께 생각하는 날이다.

인쇄출판 사도직을 시작하신 성인께서 1922년 창간하신 문서
선교잡지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과문(寡聞)한 내가 수십 년
동안 국내에 있는지도 몰랐던 이 잡지의 한국어판에 원고를 내
달라는 청에 응하게 된 것도 성인의 가르침에서 감동받은 이 같
은 각성에서 비롯한 용기의 표현일 듯.

남의 나라말과 우리말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하는 직업을 가
진 사람으로서 성인의 생애는 물론이지만 성인전 집필자의 ‘성
인의 어법’에 대한 묵상 대목도 인상적이다: “모든 성인이란 아
주 단순하고 평범한 말에도 완전한 의미와 힘과 무게를 부여하
는 집요한 현실주의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인은 무엇 하나
경솔하게 입에 올리거나 약속하는 법이 없다. 성인은 외면적으
로는 평범해도 실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원하지 않으면
서도 시인이 되고 ‘말의 귀족’이 되며 잃어버렸던 언어의 아취

(雅趣)를 되찾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가난한 손 안에 들어오면 가장 시시하고 평범한 어휘도 영광의 찬미로 바뀌어져 버린다. “자매인 물이여, 형제인 불이여, 자매인 산비둘기여, 형제인 늑대여!” 등이 그렇다. 피조물마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이 피조물의 ‘고유한 이름’을 재발견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같은 책, 78-9쪽)

〈성모기사〉 회원분들도 이 성인전을 읽어보신다면 참 좋으리라 생각하며, 콜베 성인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으로 소급되는 이 묵상을 되새기며 나는 또 한 달을 살아보련다.

포르치운쿨라 전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를 받는다.

8월 2일(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미사에 참석한다.

8월 2일 천사들의 성모님을 공경하는 방향으로 프란치스칸 성당 또는 본당을 방문하여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 다른 기도(주모경 등)를 바친다.



하계 수련회

성모기사회 '작은 꽃 하계 수련회'에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8월 25 ~ 27일(금요일-주일)
- 장 소 : 부산 일광 삼덕 수도원
- 참가 신청 및 문의 : 박상규 야고보 신부
010-5380-8615

성모기사회 창설 100주년 ‘콜베의 밤’



부산지역 (일광 삼덕 수도원)	8월 12일 (토) 저녁 7시	051-721-4709
경인지역 (양평 콜베 마을)	8월 14일 (월) 저녁 7시	031-771-6134
대구지역 (프란치스카눔)	8월 14일 (월) 저녁 7시	053-636-7427

성소후원회

성소(聖召), 거룩한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위해 부르시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수도성소는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회칙 1장)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모든 수도 회원들은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 안에서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영적인 친구’를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벗’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 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 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칸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 구	월 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 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 장 성당	오후 7:30	둘째 목	051-721-2273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상황에 따라 후원회 미사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사 날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끈벵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계좌번호 : 신한 140-002-932457 / 국민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해외 선교 후원회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사라센인들과 다른 비신자들 가운데로 가기 원하는 형제들은 관구 봉사자들에게 갈 허가를 청할 것입니다.” (회칙 12장)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따라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실 벼슬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재)천주교 끈벚뚜알 성프란치스코수도회

신한은행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민은행 : 295401-01-183491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

구원의 빛이신 주님,

선조들의 거룩한 스코로

이 땅에 신앙을 빛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꿈베뜨말 프랑치스코 수도회 수사들이

선조들의 신앙과 스코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 전파에 전념하게 하시고

해외 모든 나라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했습니다

성모기사회 본부 사무실이 경기도 양평 수도원에서 서울 혜화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을 비롯해서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전화 02-745-6134(사무실)

새 주소(도로명주소)로 바뀐 후 기사지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사무실에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는 집에 오는 다른 우편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해 주세요.

1) 은행에서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기

거래하시는 은행 방문 →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 사무실 전화 (자동이체 신청 알림)

2)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사무실 전화 (02-745-6134) → 자동이체 신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회기 크게 성장한 북방 선교 후원회는 수도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총본부의 권고에 따라 한층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어 해외 선교 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사지가 여러 권 올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성모기사지가 선교후원회, 성모기사회, 성소후원회에 가입하신 모든 분에게 발송됩니다. 이로 인해 기사지를 여러 권 받으실 수 있으니, 원하지 않으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745-6134)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경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오전 10:30	일광 삼덕 공소	051-721-4709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4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3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이태영) 059-21-0614-385

농협 (이태영) 150017-51-045351

농협 (천주교프란치스코수도회)

317-0007-3146-21

우체국 (천주교프란치스코수도회)

102566-01-00549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Woori Bank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702-08-193616

Beneficiary(수취인) : Park Young Cheo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7년 8월 통권 487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황재민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준옥

사진 - 이신형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곧베틀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 03067

전화 : 02-745-6134 (사무실)

팩스 : 02-745-6135

홈페이지 : olmconv.or.kr/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오,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